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8 | 2025 JUNE | 06 월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 요 20:18 -

칼럼 - 지금은 선교 시대

박해받는 여성들

- 박해받는 여성들의 현실과
오픈도어의 비전과 사역
- 바울의 이야기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박해와 선교현장 - 중국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보는
'2025년 WWL 김제지역 순회 발표'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6월호 | 통권 278호 |

등록번호-증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민태홍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
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칼럼

- 지금은 선교 시대

04 박해받는 여성들

- 박해받는 여성들의 현실과 오픈도어의 비전과 사역

- 바투의 이야기

12 박해와 선교현장 - 중국

20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21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보는 '2025년 WWL 김제지역 순회 발표'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지금은 선교 시대

이동현 목사(한국오픈도어 이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였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대위임령을 주셨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 교수는 성경을 6막의 드라마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제1막은 창조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제2막은 타락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보살피라는 창조 명령, 문화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전가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제3막은 구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제4막은 성취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다.

제5막은 증언과 선교의 시대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선교 활동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시대다. 이 ‘선교의 시대’가 무려 2,000년 동안 이어졌고,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역을 완성하려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제6막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모든 창조 세계의 갱신으로 세계 역사의 드라마는 끝을 장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중간 시대는 제5막 즉 선교의 시대다. 이 시대에 선교 사

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표지판(signpost) 사역

표지판은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시로 일종의 소극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은 좋은 소식을 보도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 역할을 할 때 성령의 비범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삶이 곧 종교’가 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사명은 평범한 삶과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직간접적 선교사역

적극적으로 선교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알버트 월터스 교수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세계적 선교로 밀어 넣는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이웃집과 저 먼 나라에까지 과학과 예술, 미디어 시장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좋은 소식을 들고 들어가게 하신다. 사도들의 뒤를 따라 교회도 보냄을 받았다. 그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보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선교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선교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성도들은 지역선교사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독교 박해 지역과 나라에서 목숨 걸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후원 선교로 선교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은 선교 시대다. 이 선교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

박해받는 여성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든 여성이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처한 박해의 모습은 각기 다르기에, 여성들을 세워가는 일에도 그에 맞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전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그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박해받는 여성들의 현실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신앙을 이유로 잔혹한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박해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가해지는 방식은 분명 다릅니다.

여성을 이등 시민으로 여기거나, 남성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은 집 안에 갇혀 신앙 공동체와의 연결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화에서는 여성이 옷차림이나 '단정하지 못함'으로 수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수치심은 박해의 도구로 사용되어, 결국 여성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들은 가족에게 '수치를 안긴 존재'로 낙인찍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은 그 '수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딸을 다시 예전의 종교로 돌이키려 하기도 하고, 개종을 받아들

린다 해도 그 이후의 삶이 가족 전체에 수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여성들은 고립되고, 낙담하며, 외로움 속에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박해받는 여성들을 향한 비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 20:18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셔서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모든 여성이 하나님의 딸로서 정체성

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고유한 방식의 박해를 겪기에 우리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방식 또한 달라야 합니다. 여성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은 곧 그 지역 교회 전체를 회복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 됩니다.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오픈도어의 현재 사역과 미래 계획

오픈도어는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여성들과 그 공동체를 지지하고, 그들이 겪는 특수한 박해의 본질에 집중하여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호: 쉼터 제공, 트라우마 상담
- 소속감: "나 혼자가 아니야"라는 위로와 연결
- 제자훈련: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 실질적 지원: 생계 자립을 위한 SED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이 여성들, 그들의 여정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후원

박해받는 여성들은 존엄성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들이 회복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박해받는
여성들은 다시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30,000원으로 두 명의 박해받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성경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60,000원으로 박해받는 여성을 굳건하게 하는 제자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0,000원으로 두 명의 박해받는 여성들에게 한달치 필수적인 실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신다면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선교회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여성사역



[자동이체 신청하기]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여성사역 100-027-219169 (신한은행)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박해받는 여성들

바툴의 이야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는 삶

바툴의 이야기가 처음 세상에 전해졌을 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의미를 주셨는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이 지난 오늘, 바툴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그 여정은 치유와 용기의 이야기이며, 무엇보다도 조용하지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는 삶의 기록입니다.

폭력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

바툴은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일반적인 보수적 이슬람을 넘어, 극단주의적인 신념을 가진 아버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꾸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며 바툴과 어머니, 자매들을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따라 외우지 않으면 화를 내고 때리곤 했죠.” 가족들은 샤리아 율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바툴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면했지만, 언젠가 자신도 그 옷을 입어야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미나* 역시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히잡을 쓰라고 강요했고, 거절하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굴복해 히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모스크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자신의 기준대로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녀의 옷을 전부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집안에서도 바툴은 어머니와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위로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무척 의지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지만, 우리끼리는 뭐든 함께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 대가를 알지 못한 채...

어느날 아버지가 극단적 이슬람 사상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몇몇 테러 사건이 그 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를 타고 가던 어느 날, 누군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심한 후 아버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옷

을 강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매들은 이미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변화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거든요.” 바툴의 자매들은 더 이상 학대받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다정한 무슬림 아버지로 남아 주길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변화된 것에는 감사했지만, 그가 이슬람을 버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다

바툴은 아버지의 새로운 신앙에 점점 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다른 집에서 성경 공부에 참석했고, 자기 집이 순서일 때면 바툴은 옆에서 찬송과 복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찬양을 들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녀는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마음에 깊은 가르침이 생겼습니다. “이슬람에선 기도하고 자카트를 내도 천국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믿기만 해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더 알고 싶어졌죠.” 바툴은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고, 11살에 믿음을 갖고 16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대가, 예상치 못한 박해

바툴은 이 새로운 믿음이 너무 기뻐 가족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슬람이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고 배웠기에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도 가족이 받아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회심뿐 아니라 아버지의 회심에 대한 분노까지 대신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에게는 감히 뭐라 하지 못하고 대신 저를 향해 분노를 쏟았어요.”

어머니는 그것이 단순한 사춘기 반항이라 생각했지만, 바툴은 확신이 있었고, 결국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면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하다고 믿었어요.”

가족의 박해

어머니는 남편에게 직접 분노를 표출할 수 없었기에, 그 감정을 딸에게 쏟아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남자들과 섞이는 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외출을 막았습니다. 자매들도 앞에서는 조용했지만, 아버지가 없을 땐 바툴을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얼마나 돈을 받았기에 배신했냐?”는 말을 들었고, 어머니조차 때리며 이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그녀를 따돌렸습니다. “너는 같이 먹을 자격이 없다”며 따로 먹게 했고, 이는 같은 접시에서 나눠 먹는 문화에서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을 모두 잃은 듯했지만, 아버지는 중립을 택하며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교회 리더에게 맡겼고, 나는 결국 혼자가 되었어요.”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다

가족에게 외면당한 바툴은 자신을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무슬림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바툴의 신앙을 모른 채 교제했지만, 바툴은 그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과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갇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족과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와 자매들과만 있어야 했어요.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조롱하고 기도하게 강요하고, 히잡을 쓰라고 하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했죠.” 한때 함께 웃고 나누던 가족이 이제는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저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툴을 ‘배교자’라 부르며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그마저 떠나버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어요. 가족도, 사랑도, 믿음도 흔들렸고... 그때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툴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보지 못하는 사이, 주님은 계속해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 오픈도어 사역자 중 한 명인 유세프 형제가 바툴의 아버지와 연락을 했고, 그녀의 상황을 듣고 직접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유세프 형제는 저를 위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는 바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땐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께 말하세요. 아버지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먼저 부르세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사람을 찾으세요.” 이후 바툴은 유세프 형제가 이끄는 비밀 가정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비밀리에 매우 조심스럽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제게 어릴 적부터 찾고 있던 가족 같았어요. 혼자인 나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줬죠.”

다시 일어서는 바툴

말씀과 찬양을 통해 바툴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저는 정말 변화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매일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결심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 ‘예’라고 말합니다.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이제 바툴과 가족과의 관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엄마와 자매들은 여전히 제가 이슬람으로 돌아오길 바라지만, 이제는 강요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압박을 받지는 않지만, 그들의 눈빛과 태도 속에서 여전히 느껴져요.” 그녀는 결혼을 꿈꾸고 있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노처녀’라 부르며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을 주선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바툴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이웃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미혼 여성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은 외출할 때 어디에 누구와 몇 시에 가

는지 다 설명해야 해요. 많은 여자들이 가족이 허락하지 않아서 교회에 못 가요.”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바툴은 이미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박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힘을 얻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로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다른 여성들을 위한 사역

지금 바툴은 자신처럼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해요.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어요.” 바툴은 여전히 어머니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매일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은 그 아픔이 밀려오죠. 그럴 때마다 울고, 기도해요. **기도만이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줘요. 그 슬픔 속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면 기쁨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 바툴은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소서.

생명을 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소서.

지금 우리 위에 임하소서.”

바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소망과 성령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고, 그녀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주님은 누구도 어둠 속에 홀로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결국 모든 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이 모든 아픔은 사라질 거예요.**”

바툴과 함께 기도합니다.

바툴은 여전히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과 생각,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러 분의 기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의 자매 바툴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 바툴의 자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도 모임과 제자훈련에 참석하며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 바툴의 가족들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 믿음 때문에 또 다시 일자리를 잃은 바툴이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사역을 붙드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바툴과 함께 북아프리카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여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길 기도합니다. 저처럼 담대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바툴이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경건한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15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교회 출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일반적인 신앙 억압 외에도, 가족과 공동체로부터의 특별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픈도어는 최근, 이 모든 어려움이 공존하는 지역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 캠프에 참여한 '슈(Xiu)*'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릴 적 엄마가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아빠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가족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이처럼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가능하도록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33위)의 한 지역, 도초(Dochu) 목사님은 자신을 포함한 15~1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그곳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대부분 무슬림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이어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타를 당하고 강가에 버려졌고, 누군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집 안에 있는데 불을 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도초 목사와 사역팀은 이 마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폭력이 멈추기를, 믿는 이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간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초 목사에게 ‘학교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학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되고, 무슬림 지역사회와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픈도어는 도초 목사와 함께 이 학교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브리지 스쿨(Bridge School)’은 기독교인과 무슬림 아이들이 함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서로를 안전하게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역 공동체와 협력합니다.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죠. 때로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식수공급용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이 가능한 건 오직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이집트

“저는 제 무슬림 학교 친구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14살 라일라*(가명)는 이집트(2025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40위)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녀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라일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은 이사를 해야 했고, 라일라의 아버지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라일라는 가족, 친구들과도 떨어져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주변에서 이런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매일 겪는 외로움, 공허함,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일라는 한때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 정체성이 뭐죠? 어떤 믿음을 따르고 살아야 하죠?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하죠?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있다는 느낌뿐이에요.”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라일라의 가족에게 소액대출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주었고, 라일라 가족은 다시 일어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인 셸리*와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셸리는 라일라가 그토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기 원하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라일라는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라일라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깊은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슬림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름은 안전을 위해 가명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세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월드 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3억 8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심각한 박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집을 떠나야 했던 소레 목사님 처럼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이 형제자매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소레 목사님과 가족은 긴급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도움 방법 중 하나는 월간 정기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은 오픈도어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긴급구제부터 장기적인 자립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월간 후원으로 박해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 훈련, 식량 키트, 피난처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1-884970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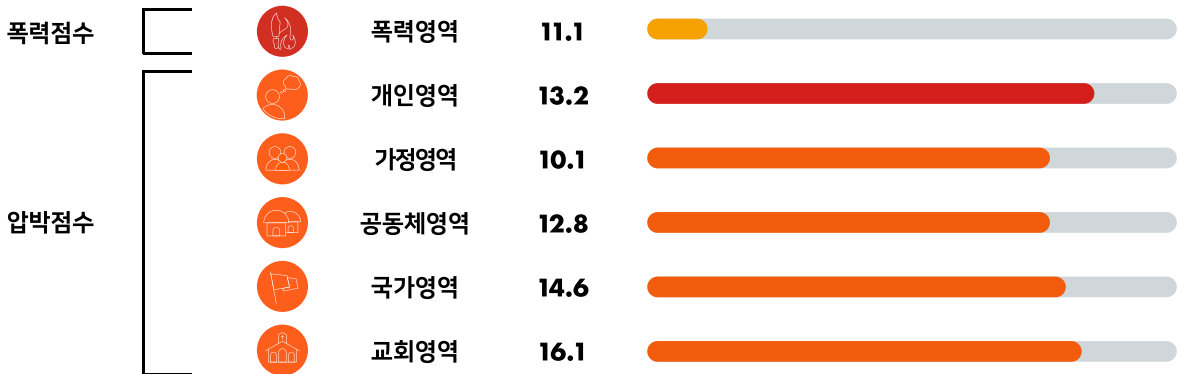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15 위

중국 (CHIN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중국 공산당(CCP)은 종교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 공산당은 자당 및 산하 청년 조직에 소속된 2억 8,100만 명의 중국인이 광범위한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교회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리, 관습, 도덕을 중국 문화에 부합시키도록 강요함으로써 교회를 당의 통제 하에 두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승인 교회 단체는 삼자애국운동(TSPM,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 개신교)과 애국가톨릭협회(CPA, Patriotic Catholic Association)이다. 이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로 불리지만, 수백 명의 신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법 종교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 승인 교회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점점 더 강하게 받고 있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비정부기구(NGO), 등록 의무, 2018년 제정된 종교 관련 규정(및 이후 몇 년간 확장된 규정, 특히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 활동 장소 규정)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 점점 더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심각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급습과 폐쇄, 지도자 체포, 기독교 자료 압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슬람이나 티베트 불교에서 개종한 신자가 공동체나 가족에게 발각될 경우, 대개 협박이나 물리적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중국 (CHINA)

국가 정보

지도자 : 시진핑 주석

인구 : 1,425,179,000 명

기독교인 수 : 96,700,000명 (OD 추정치)

주요종교 : 불가지론

정부형태 : 공산당 주도 국가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6,700,000	6.8
불가지론자	459,977,847	32.3
기타 종교	438,948,262	30.8
불교	229,755,067	16.1

출처¹

권력을 유지하고 모든 위협(실질적이든 인지적인 것이든)으로부터 통치체제를 보호하려는 궁극적 목표 아래, 중국 공산당은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마오쩌둥 사상(Maoism)식 수사와 이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사상은 2017년 중국 공산당 헌법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여러 대학이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학부를 신설했으며, 중국 공산당 당원들의 이해도를 시험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고, 유지

원생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이 사상을 주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안적 견해는 허용되지 않으며, 불 충성한 당원들은 숙청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난다.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대학 총장 직위를 당 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의 통치를 일원화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중국은 무신론 국가이다. '과학적 무신론의 원리'와 같은 무신론을 옹호하는 서적이 대학과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 교재로 배포되었다. 국민의 약 40%는 유교사상에 동의 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당이 '진정한 중국적 사상'으로 칭송하는 유일한 철학으로서 공산주의와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자애국운동(TSPM-개신교)의 시작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 가정교회는 삼자애국운동보다 수적으로 더 많지만, 연결성과 조직력이 약하다. 이들 가정교회의 절대다수는 목회 리더십이 매우 부족하며 이는 교회들이 소규모로 분산된 이후 지도자 수요

¹ 기타 종교로는 중국 민간 신앙(Chinese folk), 신흥 종교(New religionist), 시크교(Sikh), 심령주의(Spiritist), 도교(Taoist), 유교(Confucianist), 자이나교(Jain), 신토(Shintoist),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가 포함된다. Data source: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가 급증했으나 청년 사역이나 특수 사역 부문을 세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오순절성향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많은 삼자애국운동 소속 교회 장소들도 정부의 압력에 의해 폐쇄되거나 대형 교회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압박에 더해,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된 규정(특히 제27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에서 두드러짐)은 공산당이 기독교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교회들이 호텔, 상가, 사무실 건물 등 공개된 장소에서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 규모로 집회를 열었지만,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들은 10~20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분산되어, 다양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주로 개인 주택에서 모임을 가진다.

가톨릭 신자는 중국 기독교 인구에서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허베이성과 중국 북부 및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애국가톨릭협회 이외에도, 로마 가톨릭 교황청을 따르는 독립 가톨릭 교회들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활발하거나 외국 손님을 초청한 대형 교회들이 주로 감시와 폐쇄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독립 교회이든 국가 승인 교회이든 모든 교회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회가 폐쇄될 경우, 소규모 그룹으로 분산되거나 온라인으로 모임을 이어가게 된다.

현재는 종교 모임을 위한 온라인 활동, 종교 활동 장소, 지도자 선출까지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경 앱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금지되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점점 더 경제범죄, 금융사기, 혹은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포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공식적 동맹국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비간섭 원칙과 국가 주권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 과정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부동산 시장 붕괴, COVID-19 팬데믹의 여파와 맞물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PRC Leadership Watch, 2022년 12월 6일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소수 민족 배경을 가진 무슬림 또는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박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종교 자유 침해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신장, 티베트, 서부 중국(쓰촨성, 윈난성)이 주요 박해 지역으로 지목된다. 또한 칭하이성과 닝샤에서도 무슬림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상황이 비슷하다. 쓰촨성 서부에는 티베트계 인구가 다수 거주하며, 구이저우성과 윈난성에도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다. 윈난성에는 후이족(Hui) 무슬림 소수집단도 거주하고 있다.

개신교 신자들은 허난성,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허베이성에는 가톨릭 신자 수가 많아 이들 지역도 추가적인 주요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전역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성(省)에서 관련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외국인 기독교인 공동체들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독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현지 중국 교회와의 접촉에 있어 감시와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특히 서방 출신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중국 당국은 외국인 기독교인 선교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인, 대만인, 홍콩 출신 선교사들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삼자애국운동과 애국가톨릭협회 소속 교회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직접적인 검열이 없더라도 지도자들은 발언에 매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 선출 과정은 국가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은 공산주의 이념적 요구를 수용한다. 삼자애국운동과 애국가톨릭협회는 각각 교회의 '중국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독교 개종자들

개종자들은 주로 무슬림 또는 불교(티베트 불교) 배경

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개 민족적 긴장이 심한 소수 민족 지역에 거주하며, 정부와 지역 공동체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는 개종자들에게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압박한다. 이는 공통신앙이 민족 집단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요소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당 당국이 '민족 단결법'을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일부 성도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몇몇 성에서는 상업용 건물에서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졌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다시 개인 주택에서 모임을 갖는 형태로 돌아갔다. 이 부류는 통제 강화와 '종국화'정책의 심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공산주의와 포스트 공산주의 억압

기독교인은 국가의 완전한 통제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사회 집단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공산당에게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당 규정에 따르면, '사상 강화 교육'을 받은 후에도 종교 신념을 유지하는 당원은 '자발적으로 당을 떠나도록 권유받는다'. 무슬림 및 티베트계 지도자들은 때때로 공산당에 의해 당직자로 편입되어, 해당 지역에서 기독교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독재적 편집증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했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통제 유지를 위해 거의 군사적 수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다른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원인을 연구해왔으며, 그중 하나로 기독교인과 같은 사회적 집단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이질적 존재로 간주되며, 주로 서방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공산당은 관료들에게 반기독교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여성들은 특히 가정교회에서 많은 리더십 역할을 맡고 있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투옥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무슬림과 불교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민족 집단을 배신한 자로 여겨져 남편이 이혼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현재는 폐지된) 한 자녀 정책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 정책의 여파는 주변국 기독교 공동체의 취약성과 맞물려, 중국 내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걸린 주변국 출신 여성 기독교인들이 신부로 팔려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들:

- 강제 결혼
- 인신매매
- 폭력 - 성적

남성

여성들과 비슷한 박해를 받지만, 남성과 소년들은 신체적 학대, 특히 경찰에 의한 구타와 같은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남성 기독교 지도자들은 특히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가톨릭 사제들과 유명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성들은 경찰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경험할 수 있다. 구금 중에는 많은 남성들이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된다. 장기 구금된 경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압박 때문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해외 이주를 선택하기도 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 형태들:

- 납치
- 정부에 의한 투옥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15	78
2024	19	78
2023	16	77
2022	17	76
2021	17	74

WWL 2025에서 0.4점 상승한 것은 기독교인들을 둘러싼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에 소속된 교회이든 아니든 전국적으로 교회에 가해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압박을 반영하고 있다. 공식 지침 시리즈와 함께 발표된 공산주의 이념에 따르지 않고는 버티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애국주의 교육법"의 시행은 국가 승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도입된 모든 종교 관련 규정들은 현재 엄격하고 확실히 적용되고 있다. 폭력 관련 점수는 WWL 2024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월 27일:** 헤이룽장성 샤오투에서 비등록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당국에 의해 급습당했으며, 2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 **2024년 4월:** 내몽골 후허하오터 법원은 반옌홍(Ban Yanhong)에게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며)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불법 영업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4년 6월 24일:** 산시성 신저우 출신 가정교회 목사 두밍량(Du Mingliang)은 "불법 국경 출입 조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 **2024년 7월 24일:** 구이저우성 구이양 런아이개혁교회(Guiyang Ren'ai Reformed Church) 장로 장춘레이(Zhang Chunlei)는 "국가 정권 전복 선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 당한 기독교인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납치된 기독교인	강간 및/또는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2025	100*	1000*	100*	100*
2024	100	1000*	100*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으로 인한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동향의 폭력 섹션을 참조해야 한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온라인에서 기독교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규정에 따라 성경과 코란앱이 애플스토어에서 금지되었고, 종교 오디오북은 오더블에서 금지되었다. 한 국가 전문가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기독교인의 집에 당국이 강제로 들이닥쳤다는 보고도 여러 건 접수되었다. 무슬림이나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하는데, 발각될 경우 지역 당국에 의해 협박을 받거나 구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 및 군 소속 인원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도, 대개 그 사실을 숨긴다. 지난 1년 동안 수백 명의 기독교인이 “지정 장소 주거 감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구금 및 가택 연금당했다.

가족 영역

18세 미만 아동은 종교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당국은 종교 활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혼란을 느끼거나 때로는 기독교인 부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부모의 종교를 공개하도록 압박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종한 부모를 둔 기독교 자녀들이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추가 학업 기회를 박탈당하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보고 기간 동안,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인용한 서류가 공개되었는데, 이 서류는 “학교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학교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동체 영역

CCTV, 주민위원회, 보안요원 등에 의한 감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목받는 기독교인들은 특별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 기간 동안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교회의 활발한 지도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어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에 충분하다. 공산당은 보안요원들이 이상 징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그리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시가 이

뤄진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경찰서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청두의 얼리레인언약교회(Early Rain Covenant Church) 잔존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의 고용 차별은 더 흔한 현상으로, 예를 들어 모든 종교의 신도들은 당원 자격이 필요한 정부 직위에서 배제된다. 드물게는 정부가 민간 고용주에게 종교 신자와의 고용 계약 해지를 압박한 사례도 있다. 이슬람이나 불교로부터 개종한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돌아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차별에 직면한다. 이슬람이나 티베트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강제로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개종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족에 따라 조상 숭배 의식에 참여를 강요 받을 수도 있다.

국가 영역

중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종교 활동의 기준을 국가가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WWL 2025 보고 기간 동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영업이나 사기혐의였다. 이러한 혐의 적용은 점차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위에 제시된 사례 목록 참고).

종교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허가를 거부하거나, 외국과의 연계를 밝혀내기 위한 금융 조사를 실시하거나, 건축물 또는 화재 안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삼자애 국운동 교회 소속 목회자들은 ‘핵심 사회주의 가치’와 ‘애국심’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직위를 잃거나 삼자애국운동에서 탈퇴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2023년 규정의 제39조는 “설교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예: 노인 연금 등)에 의존하는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지역 공산당 간부들로부터 신앙과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 또한 공공 부문 진출을 희망하는 기독교 청년들은, 신앙이 알려질 경우 사실상 기회를 잃게 된다.

교회 영역

교회 활동은 단순히 정부요원들의 감시만이 아니라, 강단과 회중, 교회 부지 전체를 감시하는 CCTV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 승인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설교를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카메라와 첩자에 의한 감시로 인해 교회 내 자기검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종교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21년 5월과 2023년에 각각 발표되었으며, 이 규정은 특히 시진핑 사상을 포함한 이념 및 정치 이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종교 성직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도 도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성직자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공산당 지도부 및 교회의 중국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애국 교육의

일환으로, 성직자들은 단순히 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넘어 '홍색 순례'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산당 역사상 주요 장소들을 방문해야 한다. 베이징, 푸젠, 광둥, 랴오닝, 산둥, 상하이 등 여러 도시와 성(省)에서 관련 기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으며, 활동이 발각될 경우 괴롭힘과 방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비등록 교회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분산해, 다양한 장소를 옮겨가며 저자세를 유지하면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과거에는 종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일부 통로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반대 목소리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중국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에 서명은 했지만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규칙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종종 방해받고 중단되고 있다 (ICCPR 제 17조)
- 교회는 법적 지위를 얻는데 방해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들조차 국가의 강한 간섭을 받고 있다 (ICCPR 제 18조)
- 기독교 지도자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투옥되고 있다 (ICCPR 제 9조)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이슬람으로 재개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ICCPR 제 7조 및 18조)
-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괴롭힘과 차별을 받고 있다 (CRC 제 2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종교 예배 참석과 종교 교육을 받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 (CRC 제 14조)

중국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이슬람교, 불교 도교, 유대교의 예배 장소들도 폐쇄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무슬림, 불교도 그리고 파룬궁 신자들은 고용, 주거, 사업 등에서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티베트불교도들은 특히 새로운 민족 단결법 아래에서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신장지역의 무슬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최대 100만 명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급진 이슬람에 맞서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는 이러한 잔혹 행위를 기록했지만, 중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고서 공개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 중국 내 수용소 실태는 '차이나 리크스(China Leaks)'와 같은 보고서와 위성 사진을 통해 그 규모가 드러나고 있다.

오픈도어의 중국 사역

오픈도어는 지역 교회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주로 중국 북서부의 이슬람 소수민족 출신)
- 불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 한족 출신 기독교인

오픈도어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성경 및 제자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박해 대비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 지역 문화에 맞춘 기독교 문헌을 배포하고 있으며 구금된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끄심

김서윤 전도사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나와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까지 뿔뿔이 흩어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우리는 당연히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우리는 주로 뒷산에 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놀다가, 해가 질 때쯤 땀감으로 쓸 죽은 나무나 떨어진 가지들을 모아서 주워서 내려오곤 했다.

낮선 이국땅에서의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우리를 도와주신 여러 은인들이 우리 가족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한 은인 중 팡즈 이모는 어머니가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조선족 버스운전사였다. 중국말을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시골에서 온 조선족인줄 알고 말을 걸어오셨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팡즈 이모는 처음에는 북한 사람을 도왔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셔서 어머니를 외면하셨지만, 나중에 나와 동생들을 보시고 마음이 녹으셨는지 우리 가족을 많이 보살펴 주셨다.

처음 우리 남매들을 보시고는 우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던 팡즈 이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셨던 팡즈 이모는 지인이 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알아봐 주셨다. 그곳은 노래방이 딸린 2층짜리 카라오케 식당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낮에는 주방에서 커다란 접시를 닦았고, 손님들이 다 나간 밤에는 청소를 담당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많은 시간에는 절대 홀에 나가지 않았다. 식당주인이셨던 아주머니는 그런 나를 안쓰러워하셨고 늘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해 주셨고 가끔은 방에 가서 쉬라고 편의도 봐주셨다. 나는 그곳에서 재워주고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 감사했기에 누구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그곳에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일하는 이모님들이 많았고, 식당 뒤편에 있는 직원들 숙소가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한달을 지냈다.

그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엄마가 너무 보고싶었다는 것이다. 고단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는 늘 몰래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 어린 나이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나를 대견

해 하면서도 늘 위로해 주셨던건 팡즈 이모였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모의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집을 열어주셨다. 팡즈 이모의 집은 내 맘에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이런 안식처가 없었다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던 중국에서의 생활을 어찌 견딜 수 있었을까.

한편 우리 가족은 불법체류자로서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족 이모들은 항상 우리 집이 애들이 많다고 걱정을 하셨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2~3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 있다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사게 되고 신고 대상이었다.

그래서 한 명은 기숙학교로 보내야 서로가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여자보다는 남동생이 씩씩하게 혼자서도 잘 지낼 것이니 남동생을 기숙학교로 보내라고 엄마를 재촉하곤 했다. 남동생은 결국 가짜신분을 만들어 다른 도시의 기숙학교로 보내지게 되었다.

여동생도 감사하게도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활력을 되찾으신 주방 큰어머니께서 어머니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여동생의 총명함을 보고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친척에게 여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여동생은 주방 큰어머니의 친척집에서 지내며 소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서로 이해해주고 유일하게 의지하던 여동생이 없으니 이 세상에 나홀로 남겨진 것만 같은,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실제로 여동생이 없는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방학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여동생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보며 부러움과 약간의 질투심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동생도 나름대로 남의 집에서 눈치밥을 먹어가며 혼자 공부하며 쓸쓸히 지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고 여동생과 헤어지기가 더욱더 싫었다. 그래서 하루는 큰어머니와 어머니를 붙잡고 우리를 갈라놓지 말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더랬다.

(계속)

사진으로 보는

'2025 WWL 김제지역 순회발표'

지난 4월 24일(목), 김제 세계선교슬라이트교회에서 열린 월드와치리스트(WWL) 순회 발표회는 전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연대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생생히 전하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동향 보고 △어린이 박해지도와 여권 소개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 △오픈도어 기도용사 모집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자료인 '어린이 박해지도'와 '어린이 여권'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는 2025년 박해지도와 50일 기도책자, 어린이 자료들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실천적 참여를 요청했습

니다.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는 "박해받는 형제자매의 고통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도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며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위한 든든한 중보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3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중에 있으며, 다음 순회 일정은 대구, 대전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고난받는 교회와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구, 대전 발표회에도 꼭 참석하셔서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응답해 주세요.

WWL 순회 발표에 초대합니다

내용: 1) 전세계 박해동향 2) 어린이 박해지도 3) 오픈도어 기도용사

대구

일시: 5월 29일(목)
오전 10:30
장소: 예수그리스교회
(류성호 담임목사)
주소: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57길 39
Tel: 053-962-7991

대전

일시: 6월 17일(화)
오전 10:30
장소: 늘사랑교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82
Tel: 042-861-5200

광주

일시: 7월 17일(목)
오전 10:30
장소: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담임목사)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80번길 58-6
Tel: 062-655-1225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용사를 세웁니다!

기도학교의 목적

오픈도어의 핵심가치로 무장한 기도용사 30명을 세워 전 세계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지역 기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훈련합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와 선교적 연대**
- 오픈도어 사역현장과 **선교전략의 깊은 이해**
- **브라더 앤드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모집 대상

오픈도어 기도운동에 헌신할 **기도용사 30명**

일정 안내

2025년 9월 9일 ~ 11월 25일 매주 화요일 진행
(10월 7일, 11월 11일은 기도회 인도 실습 및 휴식)

날짜	핵심 주제	사역 이해
9월 9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One Million Prayer
9월 16일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한다	Arise Africa
9월 23일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Deaf Community
9월 30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1)	Project Pearl
10월 7일	추석 연휴 / 기도회 인도 실습 1	
10월 14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Secret Believers
10월 21일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Displaced People
10월 28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World Watch List
11월 4일	하나님의 밀수꾼 (2)	Persecuted Woman
11월 11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11월 18일	휴식 / 기도회 인도 실습 2	SSTS / IPM / SEO
11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 (3)	오픈도어 선교전략 이해

장소 및 방식

-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 **방식:** 현장 참여 + 온라인 강의 병행
- **내용:** 강의 + 기도회 인도 실습 + 중보기도

문의 및 신청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기

- 이메일: odsk@oepnddoors.or.kr
- 전화: 02-596-3171
- 팩스: 02-594-3171
- 신청 마감: 선착순 30명!



등록비

5만원 (교재 및 실습자료 포함,
수익금은 박해지역 사역 후원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고난 받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 (7,000₩ ~)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 (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 5일 ☐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